

1. 암환자에서 혈압 저하를 일으키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① 탈수, 구역, 구토, 설사, 출혈 등으로 인한 체액 감소
- ② 우울, 통증 등으로 인한 구강섭취 감소
- ③ 식욕부진에 따른 구강섭취 감소
- ④ 체중감소
- ⑤ 빈혈 등

2. 암환자에서 혈압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① 통증
- ② 스트레스
- ③ 체중증가
- ④ 약물 등

3. 암환자에서 혈압 상승에 영향을 주는 약물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① 항암제 (표적치료제 등)
- ② 면역억제제 (사이클로스포린, 타크로리무스)
- ③ 소염진통제
- ④ 스테로이드
- ⑤ 조혈호르몬제 (에리트로포이에틴) 등

- 1 암 수술 후에는 특히 체중감소로 인한 혈압저하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수술후에 고혈압약을 수술전과 같은 용량으로 복용하게 되면 저혈압 발생의 위험이 높습니다.
- 2 암 수술 후 전해질불균형, 콩팥기능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혈압약 선택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.
- 3 암 수술 전에 비해 암 수술 후 체중감소가 명확한 경우에는 퇴원 시 고혈압약 조정이 필요하고, 퇴원 후에는 연고지 일차의료기관 진료 후 환자상태에 따른 고혈압약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.

1. 관련 약물

암환자에서 특정 항암제로 치료 시 고혈압이 새로 발생하거나 원래 가지고 있던 고혈압이 악화됩니다. 이와 관련된 항암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▶ 표적치료제

(베바시주맙, 소라페닙, 수니티닙, 파조파닙, 액시티닙, 렌바티닙, 카보잔티닙, 레고라페닙, 반데타닙 등)

▶ mTor 억제제

(에버로리무스)

▶ 프로테아좀 억제제

(카필조립, 보테조립)

2. 발생 시기

항암제에 의한 고혈압은 항암제 투여 후 대개 첫 수주 이내에 발생하지만 항암제 투여 후 24시간 이내부터 1년 이내까지 다양한 시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3. 관리 방법

- ① 항암제 첫 투여 후 매주 혈압모니터링 (병원혈압 및 가정혈압 측정)이 필요합니다.
- ② 항암 치료 중 매 2-3주마다 혈압모니터링 (병원혈압 및 가정혈압 측정)이 필요합니다.
- ③ 적절한 혈압평가를 위해서 통증조절, 스트레스관리가 필요하고 혈압상승억제 (스테로이드, 소염진통제, 조혈호르몬제 등)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.
- ④ 고혈압약으로 충분히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160/100 mmHg 이상 지속되면 혈압조절을 위해 일시적인 항암제중단을 고려하게 될 수 있습니다.
- ⑤ 항암제에 의한 고혈압 조절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또는 고혈압 전문가의 진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암생존자는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로 인한 다양한 **심혈관질환** (심부전, 고혈압, 고지혈증, 부정맥, 관상동맥질환, 뇌혈관질환 등) 의 발생위험이 높습니다.

암생존자의 심혈관 건강 관리 5단계 (ABCDEs)

<p>A: Awareness Assessment Aspirin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심장질환의 증상 및 위험에 대해 인식하기 - 심혈관질환 및 심혈관 위험 평가하기 - 적절한 아스피린의 사용 : 위험-이득 평가하기
<p>B: Blood pressure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혈압 측정 및 관리
<p>C: Cholesterol Cigarette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콜레스테롤 측정 및 관리 - 금연하기
<p>D: Diet Dose DM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식생활과 체중조절 - 항암제 안트라사이클린 사용 누적 용량 및 심장부위 방사선 조사용량 - 당뇨 예방 및 치료
<p>E: Exercise Echocardiogram / EKG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운동 - 개인 위험도에 따른 심장초음파 / 심전도 검사

1. 암환자에서 혈압 저하를 일으키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① 탈수, 구역, 구토, 설사, 출혈 등으로 인한 체액 감소
- ② 우울, 통증 등으로 인한 구강섭취 감소
- ③ 식욕부진에 따른 구강섭취 감소
- ④ 체중감소
- ⑤ 빈혈 등

2. 암환자에서 혈압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① 통증
- ② 스트레스
- ③ 체중증가
- ④ 약물 등

3. 암환자에서 혈압 상승에 영향을 주는 약물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① 항암제 (표적치료제 등)
- ② 면역억제제 (사이클로스포린, 타크로리무스)
- ③ 소염진통제
- ④ 스테로이드
- ⑤ 조혈호르몬제 (에리트로포이에틴) 등

1

암 수술 후에는 특히 체중감소로 인한 혈압저하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수술후에 고혈압약을 수술전과 같은 용량으로 복용하게 되면 저혈압 발생의 위험이 높습니다.

2

암 수술 후 전해질불균형, 콩팥기능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혈압약 선택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.

3

암 수술 전에 비해 암 수술 후 체중감소가 명확한 경우에는 퇴원 시 고혈압약 조정이 필요하고,
퇴원 후에는 연고지 일차의료기관 진료 후 환자상태에 따른 고혈압약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.

1. 관련 약물

암환자에서 특정 항암제로 치료 시 고혈압이 새로 발생하거나 원래 가지고 있던 고혈압이 악화됩니다. 이와 관련된 항암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▶ 표적치료제

(베바시주맙, 소라페닙, 수니티닙, 파조파닙, 액시티닙, 렌바티닙, 카보잔티닙, 레고라페닙, 반데타닙 등)

▶ mTor 억제제

(에버로리무스)

▶ 프로테아좀 억제제

(카필조밍, 보테조밍)

2. 발생 시기

항암제에 의한 고혈압은 항암제 투여 후 대개 첫 수주 이내에 발생하지만 항암제 투여 후 24시간 이내부터 1년 이내까지 다양한 시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3. 관리 방법

- ① 항암제 첫 투여 후 매주 혈압모니터링 (병원혈압 및 가정혈압 측정)이 필요합니다.
- ② 항암 치료 중 매 2-3주마다 혈압모니터링 (병원혈압 및 가정혈압 측정)이 필요합니다.
- ③ 적절한 혈압평가를 위해서 통증조절, 스트레스관리가 필요하고 혈압상승약제 (스테로이드, 소염진통제, 조혈호르몬제 등)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.
- ④ 고혈압약으로 충분히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160/100 mmHg 이상 지속되면 혈압조절을 위해 일시적인 항암제중단을 고려하게 될 수 있습니다.
- ⑤ 항암제에 의한 고혈압 조절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또는 고혈압 전문가의 진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암생존자는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로 인한 다양한 심혈관질환 (심부전, 고혈압, 고지혈증, 부정맥, 관상동맥질환, 뇌혈관질환 등) 의 발생위험이 높습니다.

암생존자의 심혈관 건강 관리 5단계 (ABCDEs)

A: Awareness Assessment Aspirin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심장질환의 증상 및 위험에 대해 인식하기 - 심혈관질환 및 심혈관 위험 평가하기 - 적절한 아스피린의 사용 : 위험-이득 평가하기
B: Blood pressure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혈압 측정 및 관리
C: Cholesterol Cigarette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콜레스테롤 측정 및 관리 - 금연하기
D: Diet Dose DM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식생활과 체중조절 - 항암제 안트라사이클린 사용 누적 용량 및 심장부위 방사선 조사용량 - 당뇨 예방 및 치료
E: Exercise Echocardiogram / EKG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운동 - 개인 위험도에 따른 심장초음파 / 심전도 검사